화려미의 시대

승탑, 탑비와 서예 | 불국토의 연속_조각과 불화 | 천년의 꿈_자기

❖ 선행 사례

- <황복사지 비편>(8세기 초)
- 신라 명필 김생(711~790이후)
- <전흥법사 염거화상탑>(884)
- <쌍계사 진감선사비>(887)
- <흥법사 진공대사탑>, <탑비>(940)
- <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>(1025)
- <현화사비>와 <석등>(1020)

❖ 승탑의 구조와 유행

❖서예의 五體

❖ 고려초기의 서예

해서_신라하대의 연속

행서_왕희지의 전형과 탄연의 서예

사경은 아직

생활서풍의 사례가 없음

1. 승탑/탑비, 서예

□ <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>(954년)

- 낭공대사(832~917)의 승탑비
- 김생(711~791 이후) 글씨의 집자비
- 최치원의 종제 최언위가 지음(917년)
- 고려 광종 때, 경북 봉화군 하남면 태자사에 세워짐(954년)
- 1509년(중종 4), 영천군수 이항(李沆)이 읍내로 옮김

□<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>(1085)

- 개경 <현화사비>(1021)를 원형으로 개선,
- 안성 칠장사터 <혜소국사탑비>(1060)에서 나아감
- 비 몸돌 장엄의 최고봉
- 비문은 정유산이 짓고 안민후가 씀
- 구양순 풍이나 부드러움

□ **탄연**(坦然, 1070년~1159년)

- 15세 명경과 합격, 1088년에 출가
- 1146년 王師가 됨

▪ <문수원기>

❖ 고려회화의 배경

- 오대와 북송의 회화
- 대장경과 <어제비장전>
-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

❖ 자기의 3요소

태토, 불, 유약

❖ 청자의 전래

❖ 북송의 관요와 고려의 자기소

2. 회화(산수화/불화)와 자기

□ <어제비장전>

□ 이녕과 그의 산수화

□ <대보적경 변상도>

□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

□ 비색자기

"푸른 색 도자기를 고려사람들은 '翡色'이라고 부르며, 근래 제작기법이 공교로워지고 색과 빛도 더욱 아름다워졌다."

徐兢,『宣和奉使高麗圖經』32 卷 器皿3, 陶爐條

"단계의 벼루, 촉 지방의 비단, 건주의 차, 고려의 비색자기는 모두 천하 제일이라 다른 데에서 흉내 내려 해도 끝내 미치지 못한다."

(宋)太平老人,《袖中錦》中 ,「天下第一」

3. 탑, 불상과 건축: 불국토의 연속

□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

□ 고전양식과 변주 양상_STUPA(탑)

□ 복고풍의 불상들

□ 고려형의 마애불과 지방형식